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집회서 35:15-17, 20-22 제2독서 티모테오 2 4:6-8, 16-18 복음 루카 18:9-14

◎말씀 < '교만' 과 '겸손' >

옛날에 어떤 마부가 당나귀 등에 '돌부처' 를 싣고 길을 갔습니다.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돌부처를 보고 합장배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며 합장배례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쭐대며 교만한 마음이 생겨 당나귀는 마부가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않고 자기마음대로 길을 갔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서 화가 난 마부는 채찍으로 당나귀를 내려쳤습니다. 갑자기 내려치는 채찍에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당나귀의 등에 있던 돌부처가 땅에 떨어져 당나귀는 다리를 다쳐 그만 쓸모없는, 일 못하는 당나귀가 되었고, 결국 주인으로 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는 오늘 예수님 말씀과 잘 맞는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 몸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양심의 가책 때문에 차마 말문을 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그 분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세리를 깎아내렸습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바리새이의 교만이 아니라, 세리의 겸손을 선택 하셨습니다. 바리새이의 교만한 기도는 하느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고, 세리의 겸손한 기도는 더욱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교만과 겸손' 에 대하여 전해줍니다. '바리새이의 기도 '와 ' 세리의 기도 '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바리새이의 기도에는 '교만' 이 가득합니다. " 하느님, 저는 살면서 -강도짓 안했고, -불의한 짓 안했고, -간음도 하지 안했고, -단식은 잘했고, -십일조는 철저히 봉헌했습니다. "라고 '꽃꽂이 서서 훈장말로 기도' 한 것은 바리새이의 '교만' 을 잘 나타내줍니다. 세리는 감히 위쪽을

향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교만' 에서 생겨 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라는 생각에서 생겨 납니다. 이런 교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느님의 완전함에 도달하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때에 인간은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느님이나 된 듯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굴 수 있습니다. 마치 돌부처를 등에 싣은 당나귀 처럼 말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 29일(화)	연중 제30주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1,820.00 \$ 870.00
10월 30일(수)	연중 제30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260.00 \$ 130.00
10월 31일(목)	연중 제30주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140.00 \$ 20.00
11월 01일(금)	연중 제30주간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기타수입 주일학교	\$ 413.00 \$ 3,322.00
11월 02일(토)	연중 제30주간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	교구 2차헌금 합계	\$ 316.00 \$ 7,291.00
11월 03일(일)	연중 제31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6명 성인: 167명
교무금 봉헌자	장석자(11-12월)이상일(10-12월)최중구(10-11월)임태운(9-10월)서량(1-10월)정두영(1-6월) 이원건(9월)김창영. 김에릭. 성영진. 이경희. 지영욱. 안기창(10월)			

◎신앙생활(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견뎌야 하는 짐이 아니라 봉헌해야 할 선물” - 프란치스코교황 전교주일 강론 중에서 발췌

우리가 방금 들은 독서에서 저는 세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각각 명사, 동사, 형용사입니다. 먼저 명사는 ‘그 산’이란 단어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면서 말했던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민족이 그리로 밀려드는 주님의 산 입니다.(이사 2,2 참조) 우리는 산에 대한 언급을 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장소로 갈릴래아의 산을 언급하십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으로 붐비는 갈릴래아, ‘이민족들의 갈릴래아’(마태 4,15 참조)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산은 하느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약속하신 장소로 보입니다.

명사인 산과 동반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곧 ‘오르다’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이사 2,3) 우리는 땅에 서있기 위해 평범한 것에 만족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하느님과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면 잘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필요 없는 것을 비워 가벼워져야 합니다. 이는 선교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선포는 미사여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어는 오늘 가장 강력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형용사 ‘모든’ 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고 요구하십니다.(마태 28, 19) 주님께서는 이 ‘모든’을 집요하게 되풀이 하십니다.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모든’ 이의 선물로 내어 주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 가기 위해 주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곧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의 제자이지, 우리의 제자로 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제대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자는 매일 스승을 따르고 제자됨의 기쁨을 타인과 나눕니다. 정복하고, 강요하며, 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면서’, 제자 대 제자로 겸손하게 다른 제자들과 나란히,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각자는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각자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복음의 기쁨’, 273항)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찬미하며,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며, 전하기 위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녀임을, 생명과 성령을 주신 형제임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을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 싶습니까? 사랑을 갖고 모든 이에게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의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견뎌야 하는 짐이 아니라, 봉헌해야 할 선물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움 없이, 모든 이를 향해 나아갑시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최이주.베아타 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김배국.사도요한의 영혼	익명	생	김영선.미카엘라의 영육간 건강	아빌라회
연	모든 연령들을 위하여	연령회			

간증지
 ●바람 속의 주님●
 내가 찾아 헤매던 당신은 그분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당신이 그분인 것을
 나 이제 다시 헤매이지 않으리
유경환.클레멘스.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유정남.요한
유성희.글라라
유인경.로사
안우진 (이상 1구역)

●공동체 소식(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 1. 위령의날 묘지미사 안내
일시:11월2일(토)오전10시30분.Slakey Chapel
장소:St.Mary's Cemetery(6700 21st Ave)
위령미사는 미리 신청바랍니다(신청:전례부)
미사전 합동연도 있으며 미사후 식사나눔 있음
성당에서 오전9시50분에 출발합니다.
- 2.모임안내
사 목 회 :27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연 령 회 :27일(일)교중미사후.마태오방
구역장회의:11월3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 3.구역모임 및 구역미사(1구역)
일시:11월8일(금)오후7시.적극적인 참여바래요.
1구역(15명);8일(금)오후7시.임현재
2구역(14명);9일(토)오후6시30분.박대련
5구역(一명);8일(금)오후7시.성당
6구역(13명);13일(수)오후7시.박병수
7구역(8명);10일(일)교중미사후.마태오방
8구역(10명);10일(일)교중미사후.루가방
9구역(9명);10일(금)교중미사후.요한방
10구역(11명);9일(토)오후6시,김혜주
- 4.봉성제 및 환자방문
일시:1일(금)오전9시30분.신부님
박성진.율리아자매님께 미리 신청해주세요.
- 5.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11월9일(토)오전10시30분.성당
미사후 만나회.요셉회가 있습니다.
- 6.본당 댄스파티(청년회후원 위한)안내
일시:11월16일(토)오후8-10시.입장료:\$20
문의:장현철.엘리야 및 각구역부장

- 7.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11월17일(일)성당에서 오후3시 출발
참여단체;전교부.하상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 8.섬머타임종료(Daylight Saving-ends) 안내
일시:2일(토)오후10시를 오후9시로 조정바래요
- 9.11월 위령성월기념음악회 안내
일시:11월9일(토)오후7시30분
장소:산호세성당(입장료:무료).게시판참조
주제:죽음,영원한 삶을 향한 시작
- 10.St.Mary 천주교공동묘소 한국Section관련 안내
최종 설계도가 준비중에 있으며, 장례미사와 문상예절 관련 비용은 10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1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문의:고원석.바오로(916-813-4440)
- 11.주님!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이덕순.마리아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12.눈검사.안경테 무료서비스 안내
대상:보험없는 저소득층(선착순)
장소:김기상검안과 문의:김세레나(916-508-2848)
- 13.감사합니다.
달력광고비(2020년):서은미부동산(\$150)

<주일학교 소식>

주일학교 가족성가대 모집
대상:주일학교학생, 학부모, 청년
문의:김형일.안드레아 주일학교장

- 식사봉사(이번주);행사부 보조:박병수
식사봉사(다음주);2구역 보조:신부님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7~8구역
- 예빈사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화답송



가 려 한 이 부 르 짖 - 자 주 님 이 들 어 주 셨 네

전례봉사	연중30주일(10월27일)	연중31주일(11월3일)	연중32주일(11월10일)	연중33주일(11월17일)
해 설	오민정.크리스티나	김은영.폴리나	최금주.요안나	김은선.제노베파
제1독서	이순자.요안나	황호민.안드레아	안선미.미카엘라	조용주.마리안나
제2독서	양방림.베로니카	황순덕.카타리나	박춘자.마리아	이영숙.벨라렛다
복 사	허호영.박성호	최진호.이상인	최준우.장현철	김규철.윤여훈
봉헌/기도/청소	7-8구역	7-8구역	7-8구역	7-8구역
헌금위원	전비아.류정임.나송희	임상일.안혜숙.박병수	고원석.윤재경.안강순	안병훈.박수옥.정의주